

제7회 한국리빙랩포럼 : 도시재생과 리빙랩

도시재생 1번지, 창원을 말하다

2018. 7. 12

경남대학교 창조관 평화홀

서 익 진

(경남대 교수)

I. 머리말

II. 창원시 도시재생의 큰 틀 : 정체성을 찾아서

III. 창원시 도시재생의 역사

IV. 창원시 도시재생의 교훈

V. 맺음말

1. 머리말

1. 창원, 왜 1번지인가? 그렇다면 과연 1번지다운가?

- 지역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하고 민간 주도 거버넌스 구축 노력을 함
- 도시재생테스트베드 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도시활력증진 사업, 상권활성화구역 사업 등 굵직한 국비 지원 사업의 연속 시행으로 도심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마산시는 상당히 일찍 도심 재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2. 나름의 성과를 올리다

- 도심 유동인구 증가, 매출 증가 (미스터리 = 유동인구와 매출 간의 불일치 -> 업종별 차이),
- 공공투자의 마중물 효과 입증 : 광장, 주차장, 도로 개선, 시장/상가 환경 개선, 볼거리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버스킹, 집회 등)이 늘어나고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 증대함.
- 성공의 대가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증대와 대책 강구 (지원센터 주도로 일부 건물주와 상생협약 체결)

3.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 주는 교훈과 반성

- 풍부한 경험 속의 시행착오가 제공하는 값진 교훈들
- => 이 글의 목적 : 도시재생 이론보다는 창원의 도시재생 실천의 역사를 검토해 교훈 도출

4. 도시재생 방법론으로서의 리빙랩

- 리빙랩은 본 포럼의 존재이유 -> 도시재생과 리빙랩의 관계 => 창원의 경험 속에서 이 관계를 확인하면서 리빙랩 방법이 도시재생 일반에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함

1. 머리말 - 도시재생과 리빙랩의 관계

1. 대상의 주체화

- 개발자 위주의 기술 개발 -> 기술 사용자(이용자)의 참여: 기획, 실행, 평가 등 가능한 모든 단계에서
=> 도시계획자, 개발자 주도 도시개발(재개발, 재건축) : 낮은 재정착률(10% 이하)과 기존 공동체 파괴 -> 대상자(거주자, 주민, 시민)에 의한, 이들을 위한 도시재생 -> 거버넌스(협력)와 협치 : 계획, 결정, 실행, 관리

2. 생활현장 중시, 일상의 문제 다룸

- 현장 랩을 통한 실험 or 테스트 => 근린 재생 : 거주지(삶터), 마을, 상가 등 근린재생

3. IT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 가능케 함
=> 스마트 도시 등 활용 가능한 분야 많음. 그러나 도시재생의 목적의 복합성에 비추어보면 새로운 IT 기술의 활용은 훌륭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4. 사회 혁신과 지역 문제 해결

- 기술 분야에서 사회/지역 문제로 확산 -> 소소한 사회/지역 문제 리빙랩으로 해결 가능함
=> 좀 더 큰 사회/지역 문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음, 특히 사회 혁신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복잡한 이해 갈등의 해결을 동반함.

5. 사회적 약자 돕기

- 약자들의 편의성 제고하는 기술/상품 개발
=>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위한 근린재생 : 구도심 소상인 전통상권, 저소득층 낙후 주거지(새뜰마을 등)

II. 창원시 도시재생 큰 틀 -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들

1. 자연적 특징

- 서울보다 큰 면적, 전국 최장 리아스식 해안선
- 마산만(가고파의 고향)과 무학산 -> "마산은 항구지만 바다는 없다"
- 창원 분지(불모산, 장복산, 정병산, 천주산, 팔룡산)
- 매립의 역사 : 반으로 줄어든 마산만(송림 우거진 월포해수욕장, 가포유원지 사라지고 부두와 공장만 들어섬)
- 물 맑고 공기 좋은 '마산'(국립결핵전문병원, 전 국 군통합병원; 양조산업(술과 간장)과 섬유산업)

2. 행정/경제적 특징

- 2010년 마산-창원-진해 자율적(?) 행정통합
- 세 도시 탄생의 이질성 : 마산-개항 이후 상공업도시, 진해-일제의 군항도시, 창원-1970년대 최초의 계획도시
- 동상이몽 -> 통합의 갈등과 균형발전 정책
- 마산항과 마산무역자유지역, 창원기계공단(두산중공업, LG, 현대로템, STX조선 -> 수출산업화 핵심기지)
- 후기산업화 시대와 더불어 쇠퇴하는 상공업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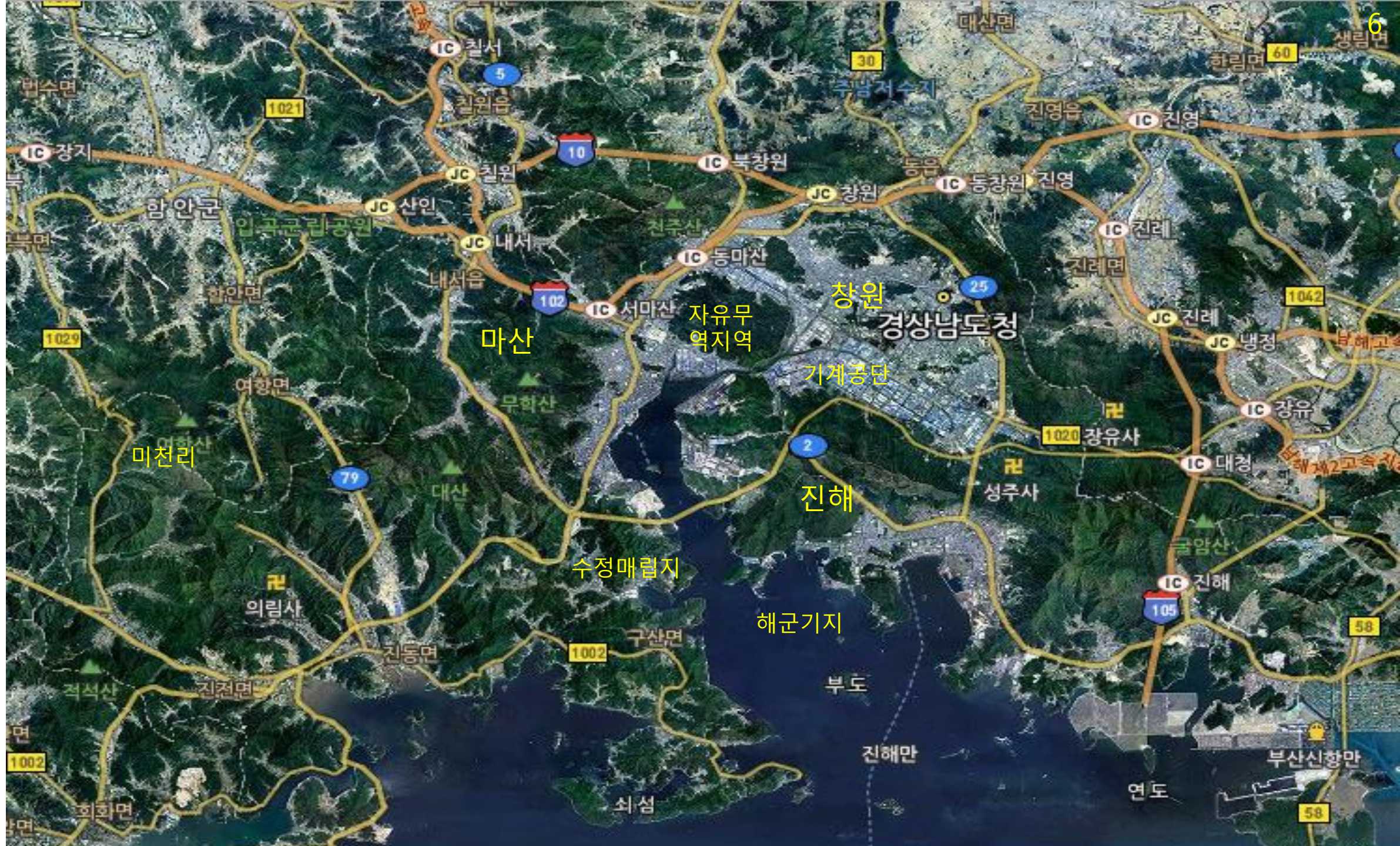
3. 사회적 특징

- 107만 인구(광역시 승격 운동)
- 이주민의 도시: 군인, 귀향민, 피난민, 산업역군
- 한국 **민주화의 성지**(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월 항쟁, 노동대투쟁 등)
- 시민환경단체 등 NGO 활성화
- 마산 전국 최고 **노령화** 지수 -> **실버도시** 가능성

4. 인문(역사, 문화)적 특징

- 몽고 정동행성, 조창(마산창(유일하게 사진 존재), 성신대제), 개항장, 열강의 조차지, 군항, 무역항, 산업화
- 문향 마산 -> 문화예술정책?
- 문창 **최치원**의 흔적(고운대, 월영대-유일한 강학소, 강선대)
- 문신 조각가 -> 창동예술촌 문신 테마 채택
- **결핵문학**: 김지하, 반야월(산장의여인)

대상지.. 창원시 전도



(통합)창원시의 정체성
한국 근대화의 상징도시
(창원 + 마산 + 진해)
공업화 + 민주화 + 안보

창원 도시재생 = 도심재생 + 수변재생

(기계박물관 + 한국민주주의전당)

자연인문사회 자원 활용 -> 시민의 삶의 질 + 쾌적성(amenity) -> 창의 계층의 집결 -> 창조산업과 창조경제

마산 원도심의 부침



한강 이남 최대 변화가

텅 빈 거리와 가게



극명한
대조

상당한
회복



부활의 몸짓

수변 재생

- 하천

- 생태하천 : 교방천, 장군천 완료
- 사실상 조경하천, 안타깝게도 이용도 낮음

- 바다

- 마산만 : 마산 지역의 핵심적인 자연 자원이지만 그 동안 부두와 상공업 시설로 둘러싸여 시민이 접근 가능했던 해변은 어시장 앞 등대 일대밖에 없었음. 2010년 서항지구의 부두 폐쇄 이후 바다는 시민에게 돌아오는 계기가 됨.

어시장 앞 방재언덕 매립 : 공사 중 (산책로 포함)

돌섬 : 한때 유명한 테마공원, 현재 조각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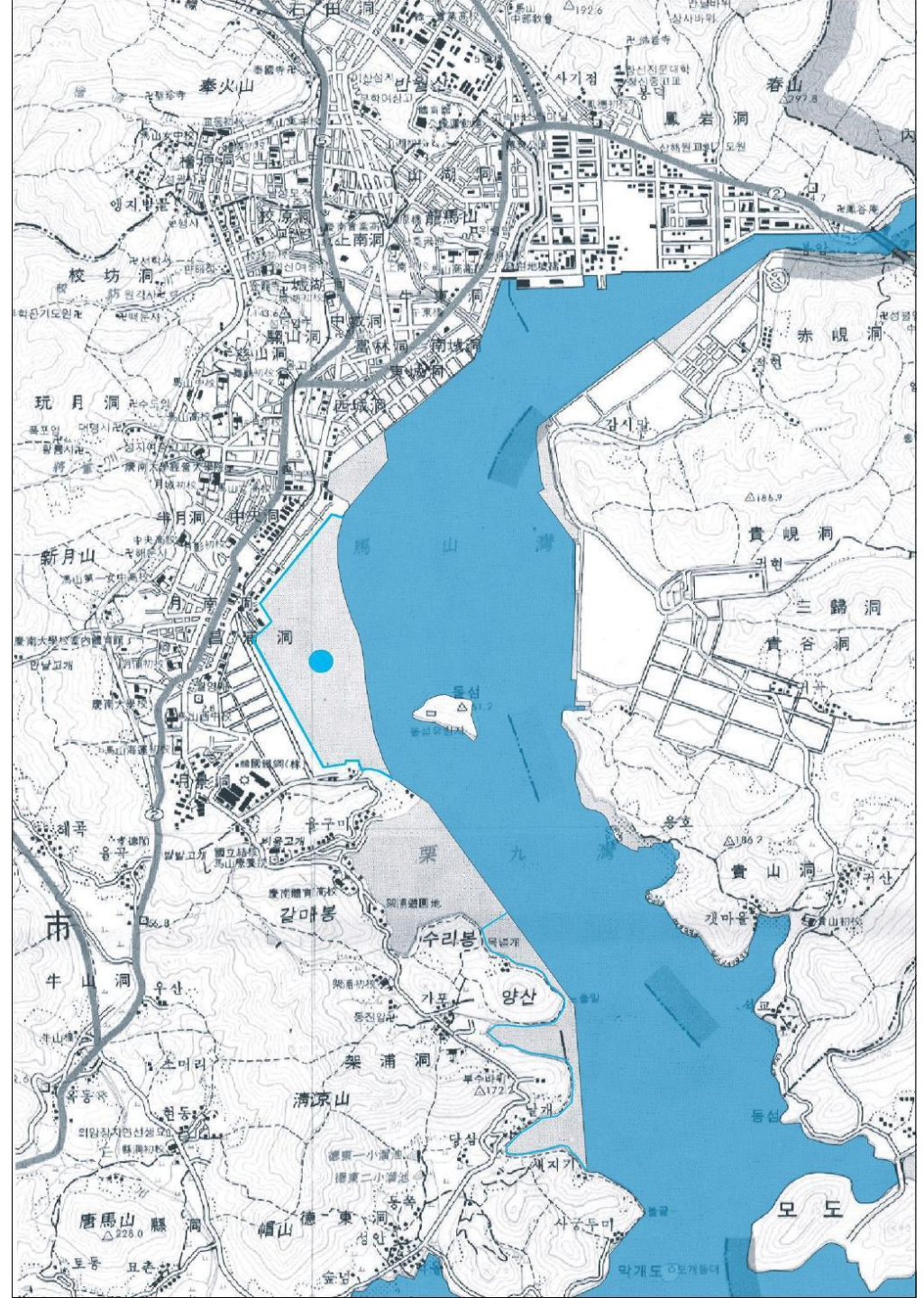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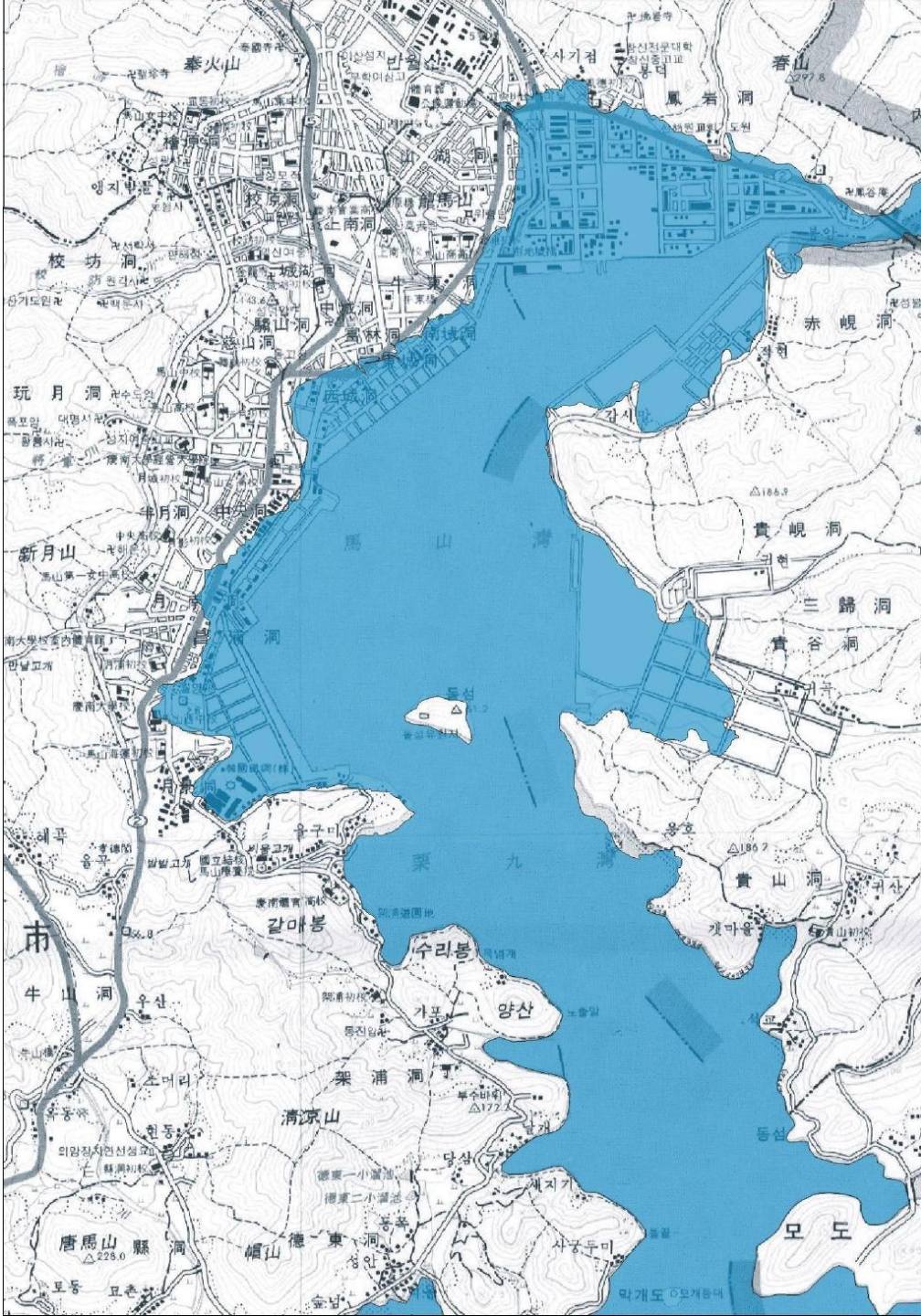
서항지구 워터프론트 : 약 8만평, 조성 중

서항 매립지 : 약 19만 평, 애초 해양신도시(아파트, 상가, 공원 등), 현재 용도 미정

해변 그린웨이 : 산호동 해안에 일부 조성

=> 돌섬, 서항지구, 서항 매립지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해양공원 조성이 관건

마산만 매립 전후



주) 허정도 제공 /
 해양신도시 부분
 이 현재 모습과
 다르며, 일부 매
 립 예정지 포함

III. 창원시 도시재생의 역사 - 시기구분

구분	태동기	도약기	성장기	확장기
연도	2006~2009 (민간 주도)	2010~2013 (행정 주도 준비)	2014~2017 (행정 주도 사업)	2018
기구	-프로젝트썬 -마산도시재생위원회 -마산도시재생민관협의회 (2009.2)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산르네상스추진단 -상권활성화재단	-창원도시재생위원회 -경남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단(도시힐링센터)	-경남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지역사회혁신센터), 도시힐링특성화추진단
정책	-전통시장활성화 -도시재생R&D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 -상권활성화구역사업(2011-2014)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법(2014) -도시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주요 활동/사업	-공공미술 -도시재생포럼, 재생신문('오동추야' 지면) -반월쌈지공원 -원도심 차 없는 거리 유지 -마산만살리기시민연합, 소모도물길트기 운동 -갈등 개입 : 미천리-진로소주, 수정면-STX, -테스트베드 선정 집중	-테스트베드: 노산동 주거재생, 원도심 상가재생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 창동공영주차장 -도심상권 인프라 개선, -오동동 문화광장/주차장, 불종로 전선지중화, -오동동 소리길, 부림시장 디자인길 -임항선 그린웨이	-상상길(문광부) -교방천/장군천 생태하천 -선도지역 세부사업 : 부림도심광장/주차장, 공가활용, 불종로 특화거리, 임항선 그린웨이, 골목디자인, 산해진미 관광 네트워크, 문화예술 국제화 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	-2017년 뉴딜사업 4곳 신청, 미 선정 -서항지구 워터프론트 조성중(항만청) -선창 매미공원(조성중)
기타	-마산도심 재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2007년) -마창진 행정통합 논의 급진전	-통합창원시 출범(2010년) -해양신도시 조정위원회 -삼광청주공장 보존 운동	-해양신도시 매립(공사중) -에스빠스리썬(예술영화관,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시) / 금강미술관	-대상지 창원전역 확대

III. 창원시 도시재생의 역사 - 다양한 사업과 공간



창동예술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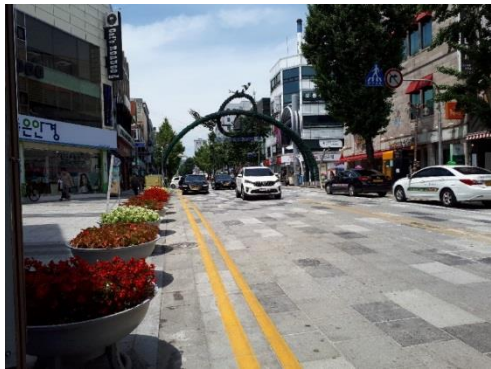
부림창작공예촌



창동 상상길



오동동 문화광장



불종로



예술영화전용관



교방천



장군천



임항선 그린웨이



삼광청주 옛 공장



돌섬



마산안 방재언덕 조감도

1. 도심 공공미술 도입

- '프로젝트 쓸' : 지역 출신 미술가 단체, 2006년 이후로 마산 최초로 공공미술 도입을 통한 전통시장 및 도심 살리기 도모
- 부림지하 먹거리센터 '행복시장 프로젝트' : 자체 아이디어와 자금 투입, 옥내 벽화 그리기
- 2007년부터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심 상인회들과 연계 : 골목 벽화 그리기로 발전
- 마산시 일부 비용 지원; 부림시장 파라솔 차양 그림 그리기, 창동거리 전봇대 꾸미기, 골목벽화 그리기(황금당 골목 지역시인 시화 설치, 아구골목 아구 벽화, 통술골목 벽화 시리즈 등, 창동/오동동 거리 포장 도안 등.
- 이후 도심 공공미술 작업 확산 : 창동예술촌 조성 시 벽화 작업 활용, 골목 꾸미기나 디자인 사업, 경남대 건축학과 학생 시내버스 정류장 작업 등
- 도심 볼거리 -> 지역 자랑거리 -> 타 도시 벤치마킹 대상 -> 전국적인 명성 획득
- 한계 :
기본적으로 가난한 미술가들의 열정만으로는 지속 곤란
지자체의 공공미술 마인드 부족으로 공공 지원 불충분



III. 창원시 도시재생의 역사 - 마산도시재생위원회

마산도시재생위원회(민간)



마산도시재생위원회
The Committee of Masan Urban Renaissance

- 설립 및 목적

- 2007년 6월 창립, 공무원 제외 각계 망라 / 자원 자립(회비, 후원금 등)
- 목적 : 도시재생 필요성 전파, 시민과 공공의 관심 제고, 전략과 실행방안 제안

-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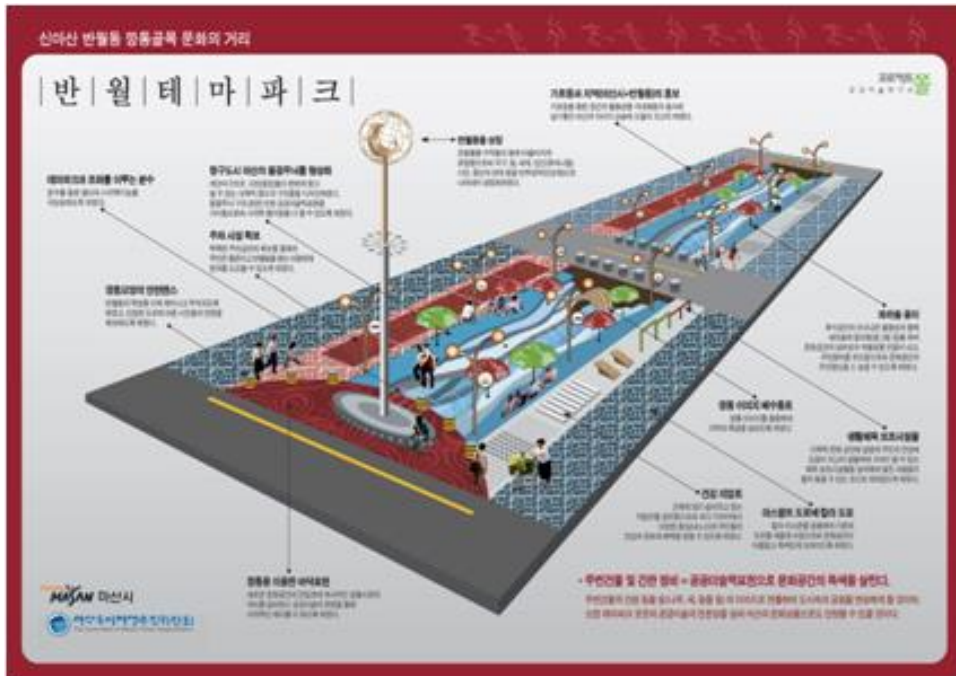
- 도시재생 관련 이론 및 사례 연구 (부설 도시재생연구소 운영)
- 도시재생포럼 정기 개최 : 연극포럼, 국화포럼, 공공미술길거리포럼, 전문가 특강 등
- 도시재생신문 발간 : 오동동상인신문 '오동추야' 지면 활용
- 홈페이지(www.remasn.net)를 통한 도시재생 관련 정보와 지식의 축적 및 보급

- 관련 활동

- 반월(깡통골목)테마공원 조성 운동(2007) • 오동동문화의거리 '차 없는 거리' 유지 및 재포장(2007) • 마산만살리기(시민연합) 및 소모도물길트기 운동 참여 • 마산법조타운 도심 유치운동(2007) • 마산도심재생및활성화기본계획 연구용역 참여(2007) • 해양신도시 조성 반대 운동(2008) • 도심광장공원 조성 운동 • 미천리기업(진로소주)-주민 지하수 갈등 해결(2009) • 수정리 STX조선 블록공장 공해(소음, 분진) 갈등(2009) • 삼광청주 폐 공장 보존 운동(2010) • 테스트베드 유치 활동(2009-2010)

III. 창원시 도시재생의 역사 - 반월테마공원 사례

- **배경** : 2007년 반월동 강통골목 상가건물 철거 -> 50년간 숨어 있던 신월천 -> 마산시 상인과 주민의 숙원 주차장 조성 위해 복개(覆蓋) 후 도로(주차장) 건설 설계용역 진행(동년 7월 말 준공 예정) -> 강통골목의 역사적 상징성과 새로운 실개천의 활용을 둘러싼 언론과 시민 관심 고조.
- **경과** : 마산도시재생민간위원회(이하 재생위로 약칭) 마산시장 긴급면담 요청 -> 도랑 있는 수변공원(쉼터) 조성안 제시 + 주민의견 재 수렴 주장 -> 설계용역 중 사업 중단 난색, 결국 주민설명회 개최 수용 -> 일주일 말미 -> 주민설명회 개최(시의 조직적인 방해공작, 갑론을박) -> 마산시, 공원 조성 주민청원서 1주일 내 제출 없으면 원안 강행 발표 -> 재생위 개입 자제 -> 기한 지난 후 주민 청원서 제출 -> 마산시 기각 후 원안 공사 재개 -> 경과에 대한 언론 보도 후 시민 여론 고조 -> 마산시 재검토 수용 -> 민관 공동조사(수량과 수질 등 기술적 문제 중심) -> 의견 일치 보지 못함 -> 수변공원 찬성 의견 증가 -> 마산시 복개 후 쌈지공원으로 계획변경



마산도시재생민관협의회

- 마산시 마산도시재생위원회(민간)의 민관협의회 설립 제안 수용
민간 차원의 도시재생 활동에 주목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선정을 위한 준비 필요성 인정
- 2008년 4월~6월, 3차에 걸쳐 UR협의회 준비위원회 개최
3차 민관협의회에서 위원 구성 확정 : 관12, 민13 계25 명으로 결정
- 2009년 2월 22일, 발족 기념 심포지움 (발제 양도식)
- 2009년 5월 15일, 1차 집행위원회

- 마창진 통합 논의 급 물살로 어수선한 가운데 활동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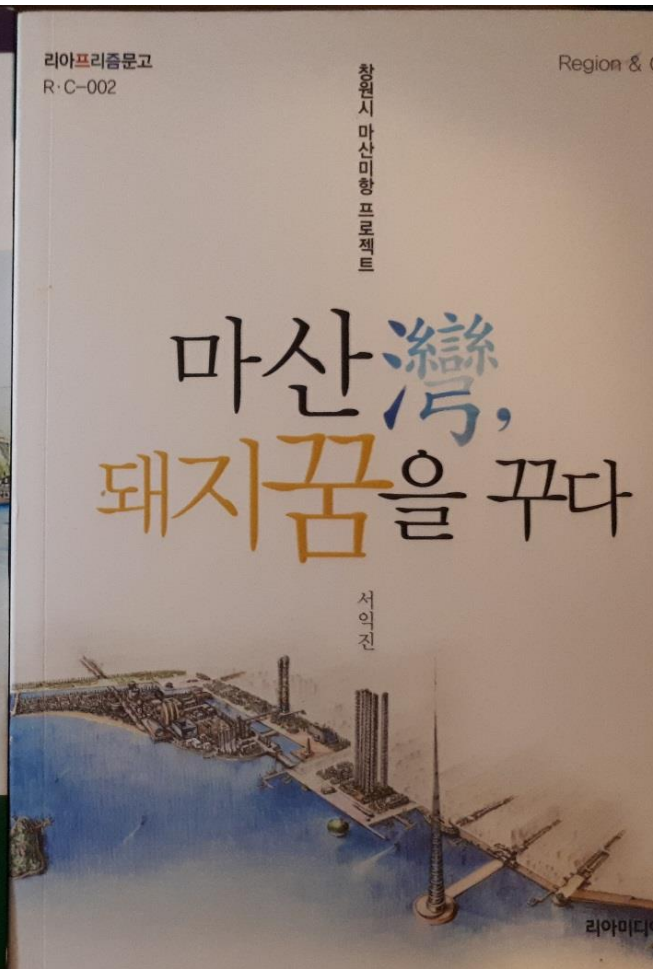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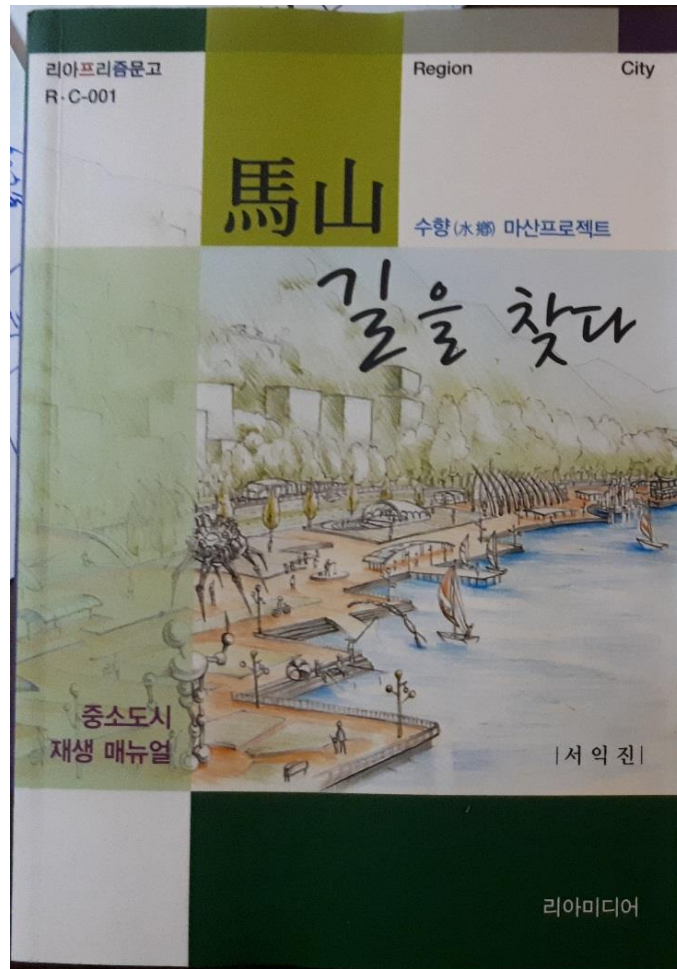
=> 발족만 해놓고 사실상 활동하지 못함

III. 창원시 도시재생의 역사 - 중간결산: 두 권의 책

마산도시재생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익진, 두 권의 책 출간
 마산도시재생의 양 축 = 도심재생 + 수변재생

“마산, 길을 찾다-
 중소도시 재생 매
 뉴얼” (2009. 12)

도심재생
 문화예술역사 기반
 도심재생 방안 제시



“마산만(灣), 돼지꿈
 을 꾸다” (2010, 12)

수변재생
 워터프론트, 도시 그린
 웨이 조성 방안 제시

1.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은 실질적인 주민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2. 코디네이터(coordinator)의 역할은 막중하다
3. 도시재생의 성공은 민간 자발성(spontaneity) 유발 여부에 달려 있다
4. 인프라(하드웨어)와 프로그램/콘텐츠(소프트웨어)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5. 도심재생은 이제 NPO의 입주, 다중집객시설의 유치에 달려 있다
6. 수변재생은 서항지구 해변공원, 돌섬, 해양신도시의 연계 구상에 달려 있다

IV. 창원시 도시재생의 교훈 - 1. 거버넌스

- 민간 활동의 성과와 한계

- '프로젝트 쓸'의 자발적인 공공미술 도입 : 상인회의 묵인하 독자 활동, 제한적 관심, 재정적 지원 없어 지속 불가능.
- 도시재생위원회와의 결합 : 관의 관심과 지원 끌어냄
- 마산도시재생위원회(민간) : 포럼 개최, 사업 제안, 기존 사업 평가 등 / 독자적인 사업 추진력 부재
- 마산도시재생민관협의회 설치 성공, 그러나 제대로 활동하지 못함; 비조례기구, 행정통합 바람에 휩쓸림

- 현행 거버넌스 기구

- 창원도시재생위원회 : 최상위기구이지만 제안과 논의, 검토 기구 -> 실질적 거버넌스는 의사결정기구여야

- 주체별 문제점 노출

• 관 : 구태 마인드 ; 예) 반월동 깡통골목 : 민의 동원, 하천 기피하는 하천과 공무원 / 도시재생 의미 모르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배치(인프라에만 신경) / 순환보직제로 수시로 바뀌는 담당직원 -> 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전문부서 장기고정보직제(자원자 우선) + 기타 단순 행정서비스, 인허가 권한, 기획/예산 부서는 순환보직;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는 직접 실행보다는 행/재정 지원에 집중.

• 민 : 무임승차, 도덕적 해이 ; 상인이나 주민 대표의 거버넌스 악용 / 협치라는 미명하에 사익 추구 경향 : 주민(상인)은 왕인가? 들어주지 않으면 비 협조 또는 심지어 방해, 나름의 권력 남용과 공금 횡령

- 전문가 : 각종 위원회 및 연구용역에 참가, 실천(행위)보다는 이론(말과 글)

- 거버넌스의 과제

• 형식적 거버넌스[절차적 민주주의] -> 실질적 거버넌스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실질적 주민참여가 잘 안 되는 한국적 특수성: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를 통한 학습 -> 시간의 문제, 학습효과

- 분야별 거버넌스 기구 설치 : 예) 가고파해변공원관리위원회(가칭)
- 공익을 해치지 않는 사익의 추구 보장
- 코디네이터 발굴, 육성, 지원의 제도화 : 양성과정 필요 (소셜 디자이너, 컬처 디자이너 등 포함)

2. 코디네이터(coordinator)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공공 코디네이터로서의 기능
- 재생사업의 구상과 집행, 장기 근무 통한 전문가 집단임에도 도시재생과의 보조 역할, 프로그램 실행, 각종 서류 작업에 국한 -> 예산과 사업추진 면에서 독자성 미약
- 구조적 문제 : 센터장 비상임, 사무국장 낮은 지위 (타 도시 지원센터에 비해)

- 민간 코디네이터 사례

- 2009년 미천리 진로소주 공장 : 기업 vs 주민 간 지하수 갈등, 중개적 코디네이터의 역할. 마산상의 부탁으로 허정도 역할 성공.
- 2010년 중앙동 주민조직 : 삼광청주공장 보존 사건을 계기로 지도적 코디네이터의 자생적 출현, 으뜸마을만들기 주민 조직으로 발전

- 중요성

- 선구자(선각자)에서 시작
- 자생적 코디네이터 발굴과 육성 및 지원
- 외부에서 온 코디네이터의 내생화=현지화(지식보다는 헌신을 통해 마음을 얻는다)

3. 민간 자발성(spontaneity)

- 도심재생 마중물 공공투자 -> 자발적 민간투자 유도에 어느 정도 성공
 - 성공의 증거이자 지속 가능성의 조건
 - 사례 : 금강미술관, 에스빠스 리죐(예술영화전용관, 게스트하우스/레지던시, 갤러리, 카페), 브랜드 커피점; 업종의 변경(귀금속, 패션->음식료, 여가 등); 기존 업체들 리모델링 확산; 건물주 외관 재단장 등
- 공모사업(마을만들기 등 근린재생사업)
 - 선정 시 자체 조직이나 코디네이터 유무, 자체 의지 확인과 부담 지우기
 - 자부담은 꼭 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 등 노력 봉사, 유희재산 무상 활용, 관리책임 부담 등
- 민간 자발성의 발휘는 쉬운 일이 아니다
 - 사례 : 도심상인들 화장실 개방 제언에 오히려 공영화장실 설치 요구
자발성 부족한 '청년바보물' 조성 사업 실패(지원 만료와 더불어 포기)

삼위일체 = 하드웨어(인프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 휴먼웨어(콘텐츠)
= 이용자에 의한 결정 + 관의 행/재정 지원 + 이용자 참여 감리/관리
= 토목건축 + 과학 기술 + 인문학적 창의성

- 컨셉플랜과 마스터플랜의 구별

-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행정이 판단하고 이를 재정자금으로 만들어만 주면 되는 시대는 지나갔음 => **이용자에 의한 컨셉플랜의 결정 + 전문가에 의한 마스터플랜 작성 + 이용자에 의한 감리/관리 => 이용자의, 이용자에 의한, 이용자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대 => 이것이 리빙랩의 방법론적 핵심인 사용자 중심의 기술개발과 일맥상통.**
- 물론 행정과 전문가는 이용자인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하고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인프라 시설 구상 때부터 고려되어야

- 시설만 만들면 누군가는 이용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 불식 -> 이용자 무시
-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이용자가 직접 디자인하면 활용도 걱정은 끝
(예,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 부적절한 기존 사례

- 사례1. **가곡전수관** (조순자 국보, 유네스코문화유산) 건립 시 사용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마산시에서 건축 -> 사후 불편 많아 추가 경비 소요.
- 사례2. **오동동문화광장/주차장** : 무차별 대중의 사용을 전제, 풀뿌리문화천국 조성 통해 인디밴드 등 콘텐츠 제공자들의 의무 공연 통한 프로그램 확보 방안 무시. 누가 사용해주길 기다리는 상황.
- 사례3. **부림도심광장/주차장** : 공사 중, 프로그램과 콘텐츠 마련이 시급함 (예, 한복체험센터 이전, 한복나들이길 개발 등)
- 사례4. **서항지구 해변공원(공사 중)** : 공원 내 구역 분할, 도입 시설에 관한 이용자 의견 수렴 미흡

- 해양신도시 경우 제언

1. 가포신항만과 해양신도시 건설 결정 및 추진 과정에 관한 면밀한 조사 -> **백서 발간**
필요성 :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 정부의 책임 부분 명확화 통한 **국비 지원 명분 제공**
2. 공사대금 변제 자금 마련 = 정부지원 + 시 재정 + 필요 시 **시민 모금**
=> **공공용지**로 확보
3. **시민 숙의제** 도입 => 용도, 시설 등 결정

해양신도시 매립지

뜨거운 감자, 해양신도시

가포신항만

마창대교

소모도

슬섬



IV. 창원시 도시재생의 교훈 - 5. 도심재생

5. 마산 원도심 재생

- 목적과 결과의 혼동에 유의

- 도심재생의 목적은 시민의 풀뿌리문화예술 공간의 창조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
- 도심 상권 활성화는 도심재생에 따르는 자연적인 결과

- 기본적인 인프라 완료 -> 프로그램/콘텐츠의 지속이 관건

- 다양한 프로그램 지속적인 시행 및 유도
- 창의적 콘텐츠 창조 유도 및 지원

- 민간 운영 준 공공성 사업과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다중집객시설(예술영화관, 미술관 등)의 지원 강화
-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지원

- 빈 공간 채우기

- 현재 도심 건물 1-2층은 가게 입주 완료 상태지만 3-4층은 빈 곳 많음
- 다양한 분야의 NPO, NGO 사무실 입주 유도

-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

- 일부 건물주와의 상생협약만으로는 미흡 -> 도심 전체로 확대 필요
- 업종별 및 업소별 차이 감안 -> 쉬운 일은 아님

6. 수변재생

- 도심재생 -> 수변재생

- 도심재생은 마산원도심에서 시작되어 도시 전역으로 확산 중
- 이제 수변재생에 신경 써야 할 때(cf. 마산만, 돼지꿈을 꾸다) ; 서항지구 해변공원 시행자인 마산항만청에게 맡겨만 둘 사안 아님

- 거버넌스 기구 설치 시급

- 해변공원 공사중 : 인프라 조성, 콘텐츠는 미확정
- 가고파해변공원관리위원회(가칭) 설치 : 콘텐츠 결정, 관리운영,

- 수변재생 성공조건

- 해변공원, 돌섬, 해양신도시를 연계해 거대한 해양공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음

- 중요성

- 창원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사안
- 마산만 워터프론트(해양공원) 구축은 관광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서항부두 해변공원 조감도





서항지구 해변공원 구조

- 공간 구획, 공원 인프라 구축 공사 중, 기존 건물 가급적 재활용
- 공간별로 들어설 구체적인 콘텐츠는 변경 가능 => 사용자인 시민 즉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만들 (예,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종류와 디자인을 결정)

[몇 가지 강조점]

1. 도시재생 사업에 리빙맵 방법론 적용 확대 필요성 큼
2.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
3. 협치를 통한 도시재생
4. 한국적 상황에서 여전히 막중한 행정의 역할
 - > 투명한 행정, 봉사하는 행정
 - 지자체가 직간접으로 생산하는 모든 공적서류(부처별 일일활동, 각종 문서와 보고서 등)를 누구나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한 자료실 구축)
 - 도시재생/문화예술 분야에서 행정은 지원 역할을 자임해야
 - 담당 공무원 장기 전문보직제 도입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 & A